

광주, 건축물 높이 제한 폐지한다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안
상업 40층·주거 30층 규제 없애
통합 심의·용적률 차등 적용
건축물 디자인 창의·역동적으로
'아파트 도시' 고층 건물 우려도



광주시가 21일 확립적으로 건물 신축 층수를 제한했던 규제를 폐기하는 대신, 경관 관리가 중요한 중점 경관관리구역에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는 등 도시 경관·건축물 디자인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고층 아파트가 뿔뿔하게 들어선 광주 북구 각하동의 한 아파트 단지.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등을 위해 '상업지역 40층, 주거지역 30층'으로 규제했던 건물 층수 제한(높이 관리)을 2년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확립적 규제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게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형성될 수 있도록 차등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과 2년여 만에 바뀌는 층수 제한 규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기존 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층수를 낮춰야 했던 아파트 업체와 입주 시민의 형평성 제기, 고층건물 신축에 대한 거부감, 일부 시민단체의 반발 등도 예상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민선 8기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경관 및 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경관계획(2040경관기본계획) 완료 시점인 상반기에 확립화된 높이 관리 원칙을 폐지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도시경관을 탄력적으로 관리하겠다"면서 "주요 상업지역, 관문 등 경관 형성이 필요한 지역에 창의적 건축물과 역동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또 "더는 건축물을 바라볼 때 단순히 층수가 높고 낮고의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지금까지는 건물을 지을 때 확립적인 층수 제한만 지키면 됐지만, 앞으로는 층수는 물론 주변 환경·건물 등과 얼마나 어울리는지, 조망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시민의 주거와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등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의 정책전환 발표에 따라 광주시는 층수 제한 조치를 오는 4~5월께 폐지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민선 7기 시절인 2021년 7월 고층 아파트 난립에 따른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비중과 무등산 조망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겠다며 준주거지

와 상업지는 40층, 제2~3종 일반 주거지역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짓도록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을 만든 뒤 현재까지 적용해 왔다. 당시 신축 예정이었던 서구 상촌동 호남대 부지 내 아파트와 첨단 일부 아파트 등은 해당 원칙을 적용받아 예초 계획보다 낮은 층수로 재설계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아파트 부지별로 해발 0m 나 200m 부지 등 입지조건이 천차만별인데도 층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대도시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고층 랜드마크 조성도 필요하다는 지적 등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광주시는 이 같은 지역 여론 등을 수렴해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지역·권역별 특성에 맞는 차등적 높이 관리 정책으로 전환해 창의적 건축물 디자인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다.

무분별한 건축을 제한하는 중점 경관관리구역도 기존 무등산, 아시아 문화전당, 영산강, 송정역 등 4곳에서 광주천, 원도심, 광천동 일원, 백운광장을 추가해 7곳으로 늘어났으며, 주변 환경·건물 등과 조화, 조망권 침해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높은 수준의 경관관리 정책이 적용된다.

특히 경관관리가 중요한 전략지역인 무등산 녹지, ACC, 송정역세권, 영산강 및 광주천은 생활속 공원과 녹지 면적을 추가 확대하는 등 기존보다 엄격히 관리되며, 광주 도심 주요 상업지역·관문 중 새롭게 경관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 광천사거리, 백

운광장, 원도심-광주역 일원은 창의적인 건축물로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건축물 신축 등에 대한 경관관리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활성화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차등 적용 방안을 제시했다. 통합심의 제도는 건축물 승인·심의 기간을 기존 9~10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그 역량을 건축디자인 혁신에 쏟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 운영기준, 대상, 방법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1만㎡ 이상 또는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수립하는 지구단위 계획 기준도 개정해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용적률 220%를 일괄 적용하는데 이를 200~240%, 3종은 250% 일괄 적용에서 230~270%로 달리해 우수 디자인 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상반기 용역에 착수해 내년 7월께 마무리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창의적이고 유연한 도시 디자인으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랜드마크화해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지역 명소를 만들고 있다"며 "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어느 곳에 살든지 조망권이 열리고 바람길은 커지고 공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창의적 도시건축물 디자인 향상 제도를 시행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알립니다

광주일보가 인재를 찾습니다

제71기 수습기자 및 경력기자 모집

올해로 창사 7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가 열정과 패기, 특독 튀는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광주일보는 그동안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사건의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발굴, 보도하면서 독자와 지역민의 대변자를 자임해왔습니다.

신문과 인터넷·모바일이 어우러진 융합미디어를 지향하는 광주일보에서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십시오.

호남언론 증가에서 100년 신문의 역사를 열어가길 창의적인 사고와 정열, 지혜와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모집대상	전형절차	자격
수습기자 0명	1차 서류전형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경력기자 0명	2차 심층면접	

전형일정	일정 및 장소
지원서 접수	2월 28일(화) 방문 및 우편 메일(chongmu@kwangju.co.kr) 접수
서류전형 발표	3월 2일(목) 개별통보
심층면접	3월 8일(수) 본사 10층
최종합격자 발표	3월 9일(목) 지면 및 개별통보

제출서류	제출처
입사지원서 1부	광주일보 홈페이지(www.kwangju.co.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수습기자 자기소개서 1부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1부 자격증 및 면허증	A4 용지 1장 이내 역사학위 소지자는 대학졸업증명서 포함 소지자에 한함
경력기자 수습기자 응시자 제출서류와 같음 본인 작성 기사 사본 5건	개인정보 비밀 보장

▶접수처: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광주일보사 경영지원국

光州日報社

위기가구 겨울 연료비 지원 月 15만원으로 인상

복지부, 3월말까지 적용

보건복지부는 겨울철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겨울철(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월 10만6700원에서 올해부터는 월 11만원으로 3.1% 인상된 바 있다.

정부는 최근의 가스요금 인상을 반영해 고시를 개정해 월 4만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고시 시행일인 오는 22일부터 3월 31일

까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4인 가구 기준 162만2000원의 생계지원비와 300만원 이내의 의료·교육·연료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연료비 인상 등을 포함한 안내 현수막을 제작, 지자체에 배포한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마음을 함께하는 행복한 이음

내 고향을 살리는 아름다운 기부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마음을 나누고 행복을 더합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보호·육성 등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 +기부대상** 주민등록 주소지가 전남이 아닌 전라남도를 응원하는 국민 누구나
-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시스템 온라인 기부 또는 금융기관(농협) 창구 대면 기부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기부혜택** 기부액의 30% 내 지역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쌀, 여수갓김치, 영광 굴비, 나주배, 강진 청자, 천연염색체험 등(200여개)
10만원까지 전액,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